



← FERDINAND
1753 →
BERTHOUD

Master horologist and chronometer-maker Ferdinand Berthoud made history with his fabulous creations. Witness his maritime chronometers that guided the King of France's ships towards new horizons in the 18th century. Today, we wish to pay tribute to the exceptional craftsman and his incredible destiny. We also seek to exalt the art of watchmaking in its most essential and fascinating a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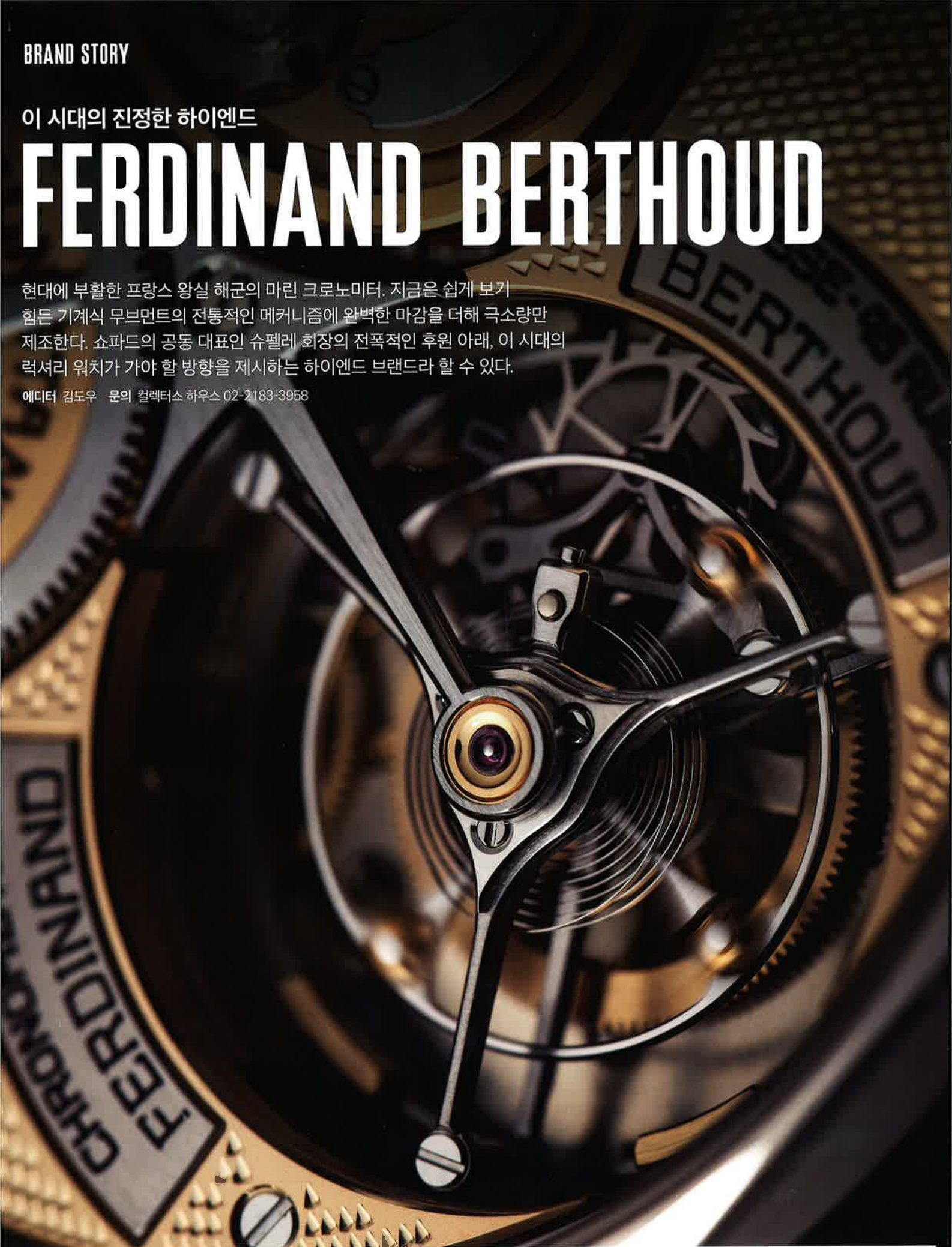
BRAND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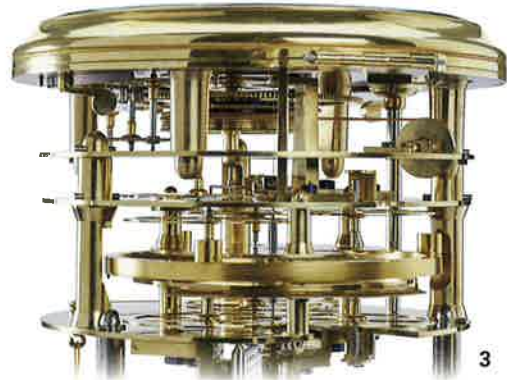
이 시대의 진정한 하이엔드

FERDINAND BERTHOUD

현대에 부활한 프랑스 왕실 해군의 마린 크로노미터. 지금은 쉽게 보기 힘든 기계식 무브먼트의 전통적인 메커니즘에 완벽한 마감을 더해 극소량만 제조한다. 쇼파드의 공동 대표인 슈펠레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이 시대의 럭셔리 위치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하이엔드 브랜드라 할 수 있다.

에디터 김도우 문의 컬렉터스 하우스 02-2183-3958





1, 2, 3 / L.U.CEUM에 소장 중인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마린 크로노미터 No. 14. 무게추 구동 방식은 단 21개만 만들어졌다. 이 중 6개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 11개는 개인 소장이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디자인과 설계 구조 곳곳에서 현행 모델에 영감을 준 디테일이 보인다.
4 / 페르디낭드 베르투(1727~1807), 크로노미터를 제조한 마스터 워치메이커. 4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과 120개의 판화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출판할 당시 유일한 시계학자였다. 이는 절대적인 레퍼런스로 활용됐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생애

1727년 스위스 뇌샬(Neuchâtel)에서 태어난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건축가이자 자산가이기도 했던 아버지 장 베르투가 꾸린 귀족 가정에서 자라났다. 뇌샬은 현재 천문대를 포함, 시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시계 학교와 시계 브랜드가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 시계의 땅이다.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14세 때부터 형의 지도 아래 워치메이커 견습생활을 시작했다. 과학교육을 받았고 수료와 동시에 워치메이커 견습생활을 마쳤다. 18세가 된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워치메이커의 기술을 더욱 갈고닦기 위해 파리로 떠나 그곳의 마스터 워치메이커 아래에서 일을 배웠다. 26세가 된 때에 프랑스 국왕의 특별한 명령을 따라 마스터 워치메이커의 자리에 오른다. 그는 활발하게 집필활동을 했으며 <Encyclopédie méthodique(방법론 백과전서)>에 수록할 시계 제조기술에 관한 기사를 썼다. 1759년에는 자신의 첫 전문서적인 <L'Art de conduire et de régler les pendules et les montres, à l'usage de ceux qui n'ont aucune connaissance d'horlogerie (시계제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진자시계, 휴대용시계 제작 및 조정)>을 출간했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아마도 영국의 존 해리슨(John Harrison)을 만났을 때 같다. 항해 시 경도 파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린 크로노미터. 그는 이것의 개발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존 해리슨과 당시 가장 정확하고 진보한 마린 크로노미터인 H4의 시찰을 국왕으로부터 명받았다. 영국으로 넘어간 그는 존 해리슨의 H1, H2, H3을 볼 수 있었으나 시찰의 목적이었던 H4는 해리슨의 거부로 볼 수 없었다. 실망한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몇 년 뒤 작센주 공사인 하인리히 브뤼(Heinrich von Brühl) 백작의 중개로 다시 한번 H4를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존 해리슨이 또다시 거부하면서 재차 무산되었다. 이는 아마도 페르디낭드 베르투가 시계제작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점을 인지해, 영국이 아닌 프랑스 해군에서





베르투 가문은 3대손이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했다. 페르디낭드의 조카 루이 베르투의 아들인 샤를 오귀스트 베르투는 1876년 사망하기까지 약 350개의 마린 크로노미터를 제작했고, 이후 베르투의 이름을 딴 시계는 생산되지 않았다.



페르디낭드 베르투가 제작한 마린 크로노미터 No. 6. 1760년대 후반 코르벳함 리시스는 국왕의 명령으로 시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마린 클락 No. 6와 No. 8을 싣고 18개월의 항해를 무사히 마쳤다.

뛰어난 마린 크로노미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경계했기 때문이다. 항해에서 정확한 경로를 찾기 위한 핵심도구이자 전략적인 가치가 있었던 마린 크로노미터 기술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다. H4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자체적인 기술을 내세워 마린 크로노미터(마린 클락 6호와 8호)의 제작 계획을 결행했고 결국 완성해냈다. 새로운 마린 크로노미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험가이자 해군장교인 샤를 클라레, 천문학자이자 해양지리학자인 카농 팡그레에 맡겨 실제 항해에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프랑스 로세포르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를 왕복하는 항로에서 마린 크로노미터를 시험해본 결과 빼어난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의 성공에 이어 국왕과 해군으로부터 기계식 시계사(Horologist-Mechanic) 면허를 취득해 마린 크로노미터의 제작 감수를 담당했다. 왕실은 20여 대의 마린 크로노미터를 주문해 그의 성공을 더욱 앞당겼다. 이후로도 활발한 저술활동과 마린 크로노미터 제작과 감수를 담당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자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왕립학원(Institut de France)의 기계예술 분야에서 일급 명예 회원에 선출되었다. 마린 크로노미터로 대변되는 당시 관점에서는 첨단 기술에 공헌했지만 1807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후손을 남기지 않은 탓에 그의 파리 작업실은 조카 루이 베르투가 물려받았다. 오늘날 그의 위업은 IT 기술 덕분에 쉽게 경험할 수 있다. 구글의 아트 앤 컬처에 접속해 '페르디낭드 베르투'를 검색하면 세계 각국의 박물관이 소장한 그의 작품을 고해상도로 감상할 수 있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작품은 종종 과학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가 남긴 높은 수준의 시계기술은 과학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위대한 부활

위대한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사후 200여 년이 지난 2015년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쇼파드 그룹에 의해 부활한다. 기계식 시계가 다시 부흥을 맞이한 1980년대 이후 술한 시계 브랜드가 다시 태어났지만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달랐다. 타협을 하지 않는 핸드메이드 워치메이킹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며 하이엔드에서도 정점을 선언했던 것이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부활에는 쇼파드 그룹의 공동 대표인 칼-프리드리히 슈펠레의 개인 컬렉션이 계기가 되었다. 그가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마린 크로노미터와 균시차(Equation of time) 기능의 회중시계를 손에 넣으면서 이미 부활 계획에 시동이 걸렸던 것과 다르지 않다.

슈펠레는 쇼파드의 개발부서에서 매우 특별한 시계를 만들지만 많은 수량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이었다. 모 하이엔드의 CEO는 과거 인터뷰에서 요즘의 하이엔드들은 생산비용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하이엔드의 본질인 아름다움이 비용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는 의도의 발언으로 진정한 하이엔드의 방향성에 메시지를 던졌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지향점은 상업적인 지표로 확인 가능하다. 여느 하이엔드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컬렉션 구성이 크게 상이하지만 엔트리 모델(물론 페르디낭드 베르투에게 엔트리 모델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해를 위함이다)로는 가격표의 자릿수가 하나 더 많은



5 / 페르디낭드 베르투는 1795년 프랑스 국립박물관 기계 예술 부문 일급 정회원으로 임명, 1804년 나폴레옹으로부터 국립 아카데미 회원으로서 명예 기사 작위 수여, 1805년 파리 천문대 및 경도국의 워치메이커로 임명받는다. 사진 속 회중시계는 1806년 그의 의뢰로 장 마틴이 제작한 몽트르 아스트로노미크 No. 3.



점, 연간 생산수량은 약 20개에서 매년 조금씩 늘어나 30개에서 최대 50개로 제한한다는 사실이다. 300개에서 500여 개도 아니고 최근 각광받는 하이엔드 독립 시계 브랜드들과 비교해도 고작 1/10에 불과한 생산수량이다. 이는 목욕한 품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함으로 시계를 통한 수익 추구라고 하기보다 진정한 시계애호가로서 무한한 애정의 발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부활에는 쇼파드 L.U.C를 개발하기 위해 육성하던 인재를 아낌없이 투입했다. 일종의 스페셜팀으로 무려 20여 명의 워치메이커, 3명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이들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구성된다. 이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새로운 무브먼트를 만들어냈다. L.U.C 매뉴팩처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쇼파드와는 완전히 별개의 팀이다. 결정적으로는 쇼파드에서 사용하는 스크루처럼 아주 작은 부품조차도 공유하지 않고 전부 새롭게 만들어낸다. 실제로 2023년 매뉴팩처를 방문한 <크로노스> 코리아는 페르디낭드 베르투 전용으로 운영 중인 최신형 6축 CNC 머신과 다수의 장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슈펠레 이전에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권리를 소유했던 곳에서는 일반적인 무브먼트를 탑재해 시계를 만들려고 했었다. 이에 슈펠레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브랜드의 권리를 사들인 이후 매우 특별한 시계를 만들라는 주문을 통해 위대한 워치메이커이자 과학자에 걸맞은 시계를 다시 창조하기 시작했다.

CHRONOMETRE FB 1 FUSÉE AND CHAIN

하이엔드의 정점을 목표로 첫선을 보인 모델은 크로노미터 FB 1.1이었다. 프랑스의 요트 클럽에서 펼쳐진 론칭쇼는 일반이 대역할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권위 있는 장소로 슈펠레가 페르디낭드 베르투에 거는 기대와 자부심을 단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면이다. 크로노미터 FB 1.1은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대표작인 마린 크로노미터 M.M. 넘버 6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적인 재해석을 거쳐 완성했다. 1777년 완성된 고도의 정밀기기는 생각보다 소박한 형태와 다이얼 구성을 보여준다. 나무로 만든 상자 속에 바다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짐벌(Gimbal)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여백을 강조한 탁상시계의 하나로 보일지도 모른다. 부채꼴 윈도우와 두 개의 스몰 다이얼을 이용해, 레귤레이터처럼 시, 분, 초를 나눠 표시한다. 레귤레이터 방식은 원하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한 기능적 의도이며, 마린 크로노미터 M.M. 넘버 6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구성이기도 하다.

크로노미터 FB 1.1은 44mm 지름에 팔각형 케이스 디자인을 택했다. 팔각형의 위, 아래를 살짝 연장해 러그로 활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전체의 실루엣은 손목시계라기보다 마린 크로노미터를 연상케 한다. 케이스 측면 역시 독특하게 마치 배의 선창처럼 디자인해 시스루 백 이외의 다양한 시점을 제공한다. 하이엔드의 정점을 지향하는 만큼 최고 수준의 피니싱을 거친 무브먼트를 한 가지 시점으로만 소비하는 것은 결코 워치메이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이얼은 마린 크로노미터 M.M. 넘버 6의 구성처럼 시, 분 표시를 담당하는 스몰 다이얼, 센터 세컨드와 연결한 기어 트레인을 노출하고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를 배열했다. 덕분에 케이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다이얼에서도 마린 크로노미터를 현대적으로 편집했다는 인상을 준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크로노미터 FB 1.1의 엔진은 인하우스에서 개발, 완성한 수동 투르비용 칼리버 FB-T.FC다. 다이얼에서는 투르비용의 상징인 케이지가 보이지 않지만, 시스루 백에서는 웅장한 케이지는 물론 투르비용의 COSC 인증이 가능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한 핵심 메커니즘인 퓨제 앤 체인이 드러난다. 극도로 세밀하고 정교한 디테일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집중된다. 층층이 쌓아 올린 체인의 탑은 메인 스프링의 불균일한 토크에 마치 필터처럼 작용해 균일한 토크로 바뀌낸다. 이것은 시계의 정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 과거의 마린 크로노미터가 쌓아 올린 명성에 필적한다. 실제로 칼리버 FB-T.FC의 하루 오차범위는 -2~+1초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표시하며, 일반적인 밸런스가 아닌 투르비용 구조가 펼쳐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더욱 놀랍다. 케이스 디자인, 무브먼트 피니싱은 물론 오차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최고 수준을 지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크로노미터 FB 1.1은 여러 형태의 베리에이션을 통해 다양함을 드러냈다. 그중 브론즈 케이스의 크로노미터 FB 1R 에디션 1785와 같은 모델은 매우 이채롭다. 팔각형의 브론즈 케이스는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했던 범선 속에서 인양한 마린 크로노미터와 같은 느낌을 낸다. 다이얼 구성에서도 변형을 가해 보다 마린 크로노미터 M.M. 넘버 6에 가까워졌다. 이 모델은 실제로 1788년에 침몰한 배에서 발견한 녹슨 육분의(당시 올바른 항로를 잡기 위해 마린 크로노미터와 더불어 필수 도구의 하나였다)에서 영감을 얻어 시간의 흔적을 케이스에 덮은 디테일로 과거의 거친 바다를 재현했다.



6



7

6/ 크로노미터 FB 1. 케이스 옆면에도 창을 내어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팔각형 케이스가 인상적이다.
7/ 고전적인 퓨제 앤 체인과 대형 투르비용을 탑재했다. 현재 이런 구성의 무브먼트는 시장에서 거의 볼 수 없다. 마감 수준도 최상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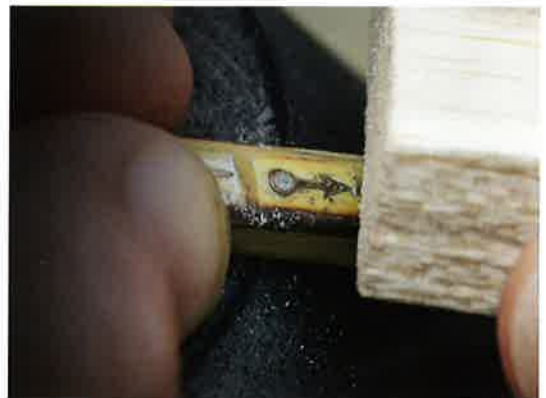


8, 9 / 지금은 생산 중지된 크로노미터 FB 2. 심플한 다이얼과 달리 레몽투아 시스템이 돋보이도록 설계한 입체적인 무브먼트가 볼거리다.

크로노미터 FB 2RE.2에서도 반전의 재미는 계속된다. 시계를 돌려 시스루 백을 통해 보이는 칼리버 FB-RE.FC는 대칭을 이루는 퓨제 앤 체인 메커니즘과 고전적인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방불케 하는 밸런스와 이스케이프먼트 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배경은 마치 달 표면 같은 샌드 블래스트 피니시로 완성한 저면 실버 플레이트다. 소재 특유의 은은함 덕분에 밝은 광채를 내는 부품을 더욱 돋보이도록 한다. 크로노미터 FB 1.1에서 채용한 바 있는 퓨제 앤 체인 메커니즘은 크로노미터 FB 2RE.2의 칼리버 FB-RE.FC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레몽투아(Remontoir) 메커니즘을 한 번 더 거친다. 레몽투아는 메인스프링에서 나온 힘이 축적되어 일정한 수치에 도달하면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달했다가, 다시 축적 후 일련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것은 콘스탄트 포스의 접근법 중 하나로 퓨제 앤 체인과 협업해 균일한 토크 형성과 사용에 공헌한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높은 정확성이다. 크로노미터 FB 2RE.2는 이들을 무기로 역시 대항해시대 말기에 활약한 마린 크로노미터의 경이로운 정확성에 도전한다. 레몽투아 메커니즘은 다이얼 위에서 데드비트(Dead beat) 세컨드로 치환된다. 1초씩 끊어 표시하는 퀴츠처럼(초침의 거동은 완전히 다르다) 센터 세컨드는 절도 있는 전진과 멈춤을 반복하며 시간을 이어간다. 칼리버 FB-RE.FC를 구성하는 부품은 퓨제 앤 체인에 약 800개, 나머지 구성을 이루는 부품에 400개를 할애해 총 1200여 개로 이뤄진다. 퓨제 앤 체인을 제외하더라도 데드비트 세컨드의 타임 온리로는 상당히 많은 부품수다. 크로노미터 FB 2RE.2의 베리에이션으로는 크로노미터 2RSM.2-1이 있다. 크로노미터 FB 1.1의 직선적인 배치를 곡선으로 변주한 다이얼이며, 다이얼 여백에는 커다란 필기체로 브랜드명과 페르디낭 드 베르투의 땅인 'Val-de-Travers'를 새겼다. 크로노미터 2RSM.2-1은 칼리버 FB-T.FC-RSM을 탑재한 투르비용이다. 크로노미터 FB 2RE.2의 콘스탄트 포스 메커니즘을 투르비용으로 제작해 난이도를 스스로 크게 올린 버전이다.

CHRONOMÈTRE FB 2 REMONTOIR

2020년 발표한 크로노미터 FB 2RE.2는 페르디낭 베르투의 역작 중 마린 클락 넘버 6을 손목시계로 변신시켰다. 마린 크로노미터는 효율적인 시간 표시를 위한 고유한 다이얼 구성이 특징이다. 더불어 격한 파도에 요동치는 배 위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짐벌 구조 역시 특징으로 꼽는다. 마린 클락 6은 실린더형 케이스와 짐벌을 볼트로 고정했다. 다리 부분에는 일종의 쇼크 업소버 역할을 하는 스프링을 장착해 변화무쌍한 바다에 대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크로노미터 FB 2RE.2는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한 표면 질감을 비추는 에나멜 다이얼 위에 바늘 세 개를 올린 타임 온리 기능을 드러낸다. 오버 사이즈 로마숫자 인덱스, 레일웨이 인덱스, 5분 단위의 미니트 인덱스로 이어지며 완만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다이얼의 경사는 고전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의 구미를 당긴다. 다이얼의 경사각에 발맞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돔 글라스 또한 애호가라면 참을 수 없는 디테일이다. 고전적이면서도 섬세한 다이얼 디테일과 달리 크로노미터 FB 2RE.2의 케이스는 마린 클락 6의 디테일을 강인하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로 투영했다. 케이스 옆면에 낸 작은 창은 여러 개의 스크루로 고정했고, 독특한 사각형 스크루 디자인을 러그 디자인에 대입했다. 케이스 옆면의 창은 크로노미터 FB 1.1처럼 많지 않지만, 탑재한 퓨제 앤 체인 메커니즘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창을 통해 보이는 체인은 아주 가늘고 세밀하지만 마린 클락 6의 디자인을 입은 케이스에서는 거대한 함선을 정박할 수 있는 앵커 체인처럼 느껴진다.





10 / 올해 신제품 크로노미터 FB 3. 고전적인 컬러링이 돋보인다. 직접 제작한 실린더 헤어스프링을 탑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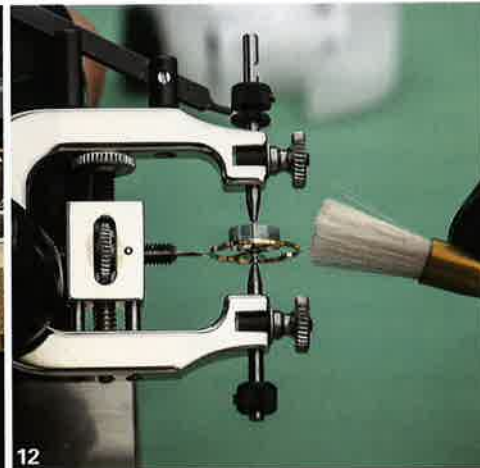
11, 12, 13 / 완성한 실린더 헤어스프링과 제조 과정. 고전적인 확대 투사기를 이용해 완벽한 원통형의 스프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케이스 디자인 자체로는 평범하다.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조카인 루이 베르투는 넘버 26에 실린더 헤어스프링을 장착해 높은 정확성을 꾀했고, 크로노미터 FB 3 SPC의 목표 지점도 여기에 있다.

요즘은 보기 어려운 실린더 헤어스프링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흔한 플랫 헤어스프링을 여러 장 겹친 다층 구조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하나의 스프링으로 이어져 있으며 실린더처럼 상하로 수축, 팽창을 반복한다. 플랫 헤어스프링이 평면상에서 수축과 팽창을 하는 움직임과 분명 구분된다. 실린더 헤어스프링은 플랫 헤어스프링을 여러 장 겹친 듯한 형태 때문에 두께에서 손해를 보지만, 상하로 운동하는 방식 덕분에 플랫 헤어스프링에 비하면 중력 저항성이 강하다. 그리고 수축, 팽창을 할 때 스프링 간의 간격이 불규칙해 이동에 따른 마찰,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플랫 헤어스프링에 비해 안정적인 중심을 가진다. 즉 크로노미터 FB 3 SPC는 페르디낭드 베르투를 계승해 크로노미터를 실현하기 위한 보다 유리한 메커니즘을 채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계가 수평 포지션에 있을 때라는 이론상의 이야기다. 손목에 착용한 손목시계는 팔의 움직임에 맞춰 끊임없는 포지션 변화를 야기한다. 때문에 현대의 실린더 헤어스프링은 플랫 스프링의 유연한 적응성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개발팀은 3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 손목시계 시대에 걸맞은 실린더 헤어스프링을 완성했다. 근본적인 형태는 물론 헤어스프링과 접하는 부품까지 개량해 전작들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오차에 도달했다.

CHRONOMÈTRE FB 3 CYLINDRICAL HAIRSPRING

크로노미터 FB 1 시리즈는 2015년 GPHG의 최고 영예인 황금바늘상(Aiguille d'or)을 수상, 후속작 크로노미터 FB 2 시리즈는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GPHG에서 크로노미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시리즈 세 번째인 크로노미터 FB 3 SPC는 2023년 등장하며 주목을 받았다. 크로노미터 FB 1과 FB 2 시리즈는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마린 크로노미터(마린 클락)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과 디테일 그리고 체인 앤 퓨제와 콘스탄스 포스 같은 하나의 메커니즘을 테마로 설정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크로노미터 FB 3 SPC는 케이스 옆면에 작은 창을 배치한 디테일을 제외한다면 평범한 라운드 케이스의 손목시계다. 전작과 달리 크로노미터 FB 3 SPC에 영감을 준 시계가 1793년 루이 베르투가 완성한 10진법 표시의 회중시계 넘버 26이기 때문이지 싶다. 이 역시





14



15

이 집념의 결과물은 다이얼 9시 방향의 공간에 배치되어 있으며, 저면 실버 소재의 플레이트를 사용해 시각적으로도 도드라진다. 다이얼 12시 방향에 노출한 배럴과 대담한 곡선의 배럴 브리지, 2시와 6시 방향에는 각각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와 스몰 세컨드가 다이얼의 여백을 채운다. 버전에 따라 무브먼트 플레이트는 고전적인 골드 컬러이거나 현대적으로 표면을 블랙 로둠으로 덮었다. 케이스는 다이얼 컬러에 따라 화이트골드 혹은 로즈골드가 매칭된다. 전작인 크로노미터 FB 1이나 크로노미터 FB 2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심플한 구조를 택한 만큼, 가격 면에서도 심플하다. 어쩌면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엔트리 모델로 포지셔닝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라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전체에서다.

14, 15 / 무브먼트를 블랙 코팅한 버전. 훨씬 모던한 인상을 준다.
16 / 크로노미터 FB 2T 파이널 에디션.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첫 번째 무브먼트를 탑재한 마지막 컬렉션이 될 예정이다.



16

CHRONOMÈTRE FB 2T FINAL EDITION

현재 페르디낭드 베르투의 홈페이지에는 앞서 소개한 FB1과 FB2 시리즈를 볼 수 없다. 소량 생산 후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제작을 중단했다. 이유는 희소성이다. 최고의 품질과 함께 작품이라 여기는 자신들의 시계를 양산할 수도 없지만 그럴 생각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올해 신제품인 크로노메트리 FB 2T는 그들의 첫 번째 칼리버이자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첫 번째 칼리버 FB-T.FC를 기념하기 위한 컬렉션이다. 전작과 달리 케이스는 팔각형에서 지름 44mm 라운드형으로 변경했다. 무브먼트가 같기 때문에 12시 방향에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오프 센터 서브 다이얼, 중앙 초침 핸즈, 9시 방향의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 오픈워크 다이얼 등 구성은 동일하지만, 표면 질감과 폰트를 훨씬 모던하게 교체했다. 중요한 건 파이널 에디션이라는 이름처럼 화이트골드와 핑크골드 케이스 버전을 각각 38개 제작한 후 칼리버 FB-T.FC는 생산을 중단한다. 물론 또다시 새로운 작품이 등장하겠지만 퓨제 앤 체인과 대형 투르비용을 갖춘, 시계 시장을 통틀어 딱히 비교할 만한 무브먼트가 없는 역작을 소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❶